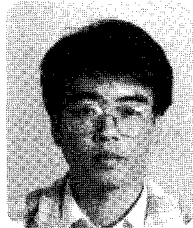


겨울철 양돈장 질병관리



이재준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외부 온도와 돈사내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겨울철에는 돼지의 건강 유지에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추운 계절이지만 돼지가 느끼기에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생적이고 깨끗한 사육환경, 적절한 사육밀도와 그에 맞는 환기, 섀바람 차단 및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온도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계절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 끊이지 않는 불청객 PED!

90년대 초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PED는 그 당시 발병양상이 흡사 TGE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질병의 경과도 빨라 일단 발병한 농장의 경우는 큰 폐사손실을 야기했었다. 그 후 지금까지 연중 많은 농장들이 PED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검물 병성감정 결과

자돈 설사병의 경우 TGE보다 PED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하였다.

1) 최근까지의 PED 발병 양상

과거 PED 발병이 보고가 안되던 시기에는 겨울철 자돈 설사병으로 TGE가 가장 문제되었는데, TGE의 경우 일단 발병 후 평균 1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종식되곤 하였다. 일단 발병 후 회복한 농장의 경우는 그 후 보통 3년 내에는 좀처럼 TGE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이러한 모종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했다. 즉 설사 피해를 입고 회복한지 수개월 지났는데 다시 재발병을 한다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질병 발생 양상만으로는 TGE와 PED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유사하였다.

그 후 매년 지속적인 발생을 거듭하여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상재화된 PED의 발병 양상은 그 동안의 상황과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 최근 PED 발병양상 〉

- 한 번 PED가 문제되었던 농장은 거의 매년 또는 수 개월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병된다.

- 발병시 양상은 복단위로 설사가 심하거나 또는 전혀 하지 않거나 하는 차이가 뚜렷하여 대장균설사증과도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 발병 일령도 초기에는 생후 1주령 정도에 설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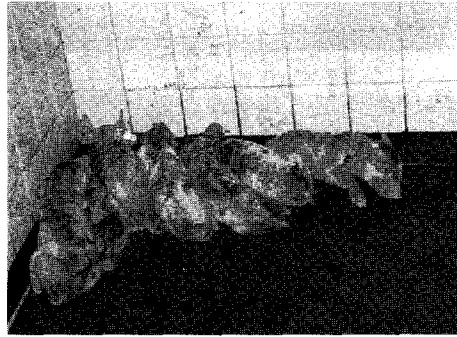
되어 정도가 심해지면 설사 발생 시기가 앞당겨져 생후 2~3일령에 전형적인 수양성 설사를 하는 피해가 큰 양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 연중 설사피해가 복단위로 지속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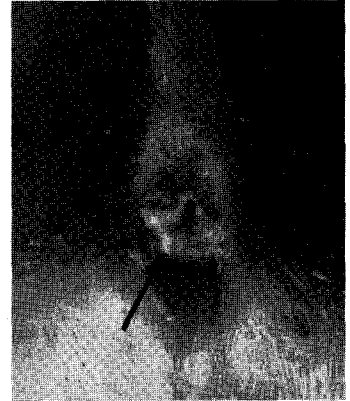
- 과거 근 10여년 동안 한 번도 TGE나 PED 발병이 없었던 농장에 PED가 발생했는데 한동안 증세가 심하지

않아 단지 설사가 늘었다는 정도로 여기고 지나는 경우도 있다.

- 간혹 최근에도 PED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장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양상은 전에 비해 질병 경과가 완만하고 그 피해도 비교적 적어 상재화에 따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사와 구토 증상을 나타내며, 추위를 느껴 한쪽에 모여 있는 자돈(PED)



▲어린 포유자돈의 설사분변(PED)

2) PED의 피해가 반복되는 농장의 공통점

- 분만사 청결도가 낮다.

- 환기불량으로 돈사가 과습하다.

- 이유후 분만틀 수세 및 소독이 완벽하지 못하다.(주로 시설 부족 및 분뇨처리의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

- 분뇨처리시 외부 수거차량이 농장내로 출입.

- 자가 분뇨처리 차량을 운용하더라도 살포하는 밭이나 공동

처리장의 오염가능성을 고려치 않는다.

- 출하차량, 특히 노폐돈 도태 차량이 농장내로 진입.

- 자가 출하차량 운용할 경우 도축장 출입 후 세차 및 소독을 완벽히 못하는 경우가 있다.(운전기사의 방역도 포함)

- 위탁사육농장을 포함하여 타 농장의 방문 기회가 잦은 농장.

〈PED의 피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는 농장〉

▲자돈 생산농장과 비육농장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경우. ▲출하차량이 농장내로 진입하지 않는 농장 ▲농장입구에 사람 및 차량 소독 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농장 진입로, 출하대 부근에는 항상 생석회를 뿌려두고 돈사마다 발판소독조 운영. ▲돈분수거 차량이 농장 외부에서 돈분을 수거할 수 있게 별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돈분장이 돈사와 인접해 있지 않다. ▲분만사의 위생관리가 철저한 농장.

최근에는 대체로 3주령을 전후해서 이유키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자돈은 면역력이나 환경 적응력, 사료 소화능력 등 제반 신체조건이 성돈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이유키와 함께 돈사 이동과 협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각종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돈의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가 뒷받침 될 때 이유키 후 자돈의 성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폐사 및 각종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전용 이유키돈사를 갖춘다. ▲이유키돈사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 (같은 일령의 돈군을 옮긴올아웃 할 수 있어야 한다)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적절한 온도, 습도관리 및 환기관리 ▲적절한 급수기 설치로 충분한 음수량 제공 ▲이유키초기에 충분한 사료통 제공 ▲돈사 및 돈방의 청결유지(특히 입식 전 수세, 소독) ▲예방적 항생제 투약을 실시해야 한다.

- 출처 불명의 락이 돼지를 구입한다.
- 후보돈 및 초임돈 방역이 소홀한 농장.
- 전체 모돈군의 면역도가 균일치 못한 농장.(이 전 발병 상황에서 인공감염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PED의 피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는 농장

- 자돈 생산농장과 비육농장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경우
- 출하차량이 농장내로 진입하지 않는 농장.
- 농장입구에 사람 및 차량 소독 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농장 진입로, 출하대 부근에는 항시 생석회를 뿌려두고 돈사마다 발판소독조 운영.
- 돈분수거 차량이 농장 외부에서 돈분을

수거할 수 있게 별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돈분장이 돈사와 인접해 있지 않다.

- 분만사의 위생관리가 철저한 농장.(빈 분만틀은 무조건 수세, 소독하고 분만사 입식 모돈의 체표 세척 실시하는 등 분만사가 전반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준다)

- 농장 내적으로도 방역 기준을 설정하여 작업순서 및 돈사간 기구 배치 등을 적절히 한다.

- 분만사 환경컨트롤이 잘되고 있는 농장 (온·습도, 환기)

- 백신접종을 정확하고 꾸준하게 실시하여 전체 모돈군의 면역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농장

- 후보돈 구입후 별도의 장소에 수용한 후 농장 순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질병 유무를 파악.



2. 이유자돈에 위협적인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줄이자

이유자돈의 소모성질병은 최근에는 연중 문제되고 있지만 자연환기 돈사의 경우 주로 돈사를 밀폐시키고 사육밀도가 높아지는 계절에 다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이유 자돈의 취약성

최근에는 대체로 3주령을 전후해서 이유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자돈은 면역력이나 환경 적응력, 사료 소화능력 등 제반 신체조건이 성돈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또한 이유와 함께 돈사이동과 합사, 백신접종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에 수반되는 각종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돈의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에 맞는 시설과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가 뒷받침 될 때 이유후 자돈의 성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폐사 및 각종 소모성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유자돈에 특히 문제되는 질병

PRRS, 대장균, 살모넬라, 글래씨병, 써코바이러스 등이 상재해 있는 경우 이유자돈에서 지속적으로 위축돈 및 폐사 발생율이 높게 된다. 특히 신축돈사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



다가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병원균의 축적으로 인해 잦은 병치레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항생제 투약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3) 소모성질병 예방을 위한 이유자돈관리

- 전용 이유자돈사를 갖춘다.
- 이유자돈사의 규모는 작을수록 좋다.(같은 일령의 돈군을 올인올아웃 할 수 있어야 한다)
-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 적절한 온도, 습도관리 및 환기관리
- 적절한 급수기 설치로 충분한 음수량 제공
- 이유초기에 충분한 사료통 제공
- 돈사 및 돈방의 청결유지(특히 입식 전 수세, 소독)
- 예방적 항생제 투약 **양돈**